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에 관한 연구

정영애*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Young-Ae Jung*

*Dept of IT Education, Sun Moon University

요약 최근 민족적·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사회복지적 측면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의 정보 리터러시 기준을 분석하여 추출한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교육과정 모델의 기초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의 측면을 고려하였고 제안된 교육과정 모델의 성격, 세부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 항목을 제시한다.

• **주제어** : 다문화가족, 교육모델, 정보 판단 능력

Abstract There are various remedies that are proposed from aspects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for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different from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d educational process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proposed model is considered to reduce digital divide by using five factor from the earlier information literacy. At last, this study explained characteristics, objective,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 and estimating method of proposed model.

•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model, information literacy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교육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서로 다른 민족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주민들은 기존의 국내 거주민과는 달리 언어, 문화, 제도 등이 다른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므로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기존의 구성원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도 지식이나 정보가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재산이 되고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높여 전자행정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 및

*교신저자 : 정영애(yajung@sunmoon.ac.kr)

접수일 2011년 2월 5일 수정일 2011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27일

활용 능력이 높은 사회구성원은 정보화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수준의 정보교육을 받은 결혼 이주민이나 자녀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하고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유아시기부터 안전하고 올바르게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들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들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적인 분석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환경을 고려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 구성요소들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정보리터러시

2.1 정보리터러시의 개념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는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의 회장 Zurokowski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Maslow의 정보욕구단계 이론을 응용한 정보욕구단계가 Horton에 의해 제시되었고 낮은 단계의 정보욕구단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컴퓨터 리터러시, 높은 단계의 것을 정보리터러시라고 하였다[6].

1989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9], 그 이후에는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윤식은 정보리터러시를 정보능력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해독능력과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 정보의 규범적 가치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2 정보리터러시 격차

정보리터러시 격차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OECD는 이를 “상이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기회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의 차이”로 규정한다.[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제2조 1항에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는 초기에는 미디어 즉,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들의 물리적인 사용법이나 접근성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나 점차 물리적 접근성과 사용 및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에 기초한 문제해결 능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보격차의 개념에 정보리터러시 격차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정보리터러시 모델

기존의 연구에서 미디어 교육이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보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고,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변별능력을 키우는 형태의 교육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방법도 정보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급속한 팽창으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확립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정보와 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미디어를 교수자료로 적극 사용하는 학습도구적 접근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유아나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판적인 해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입장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검색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이용하고 분석, 관리,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여 개발된 정보리터러시 모델로는 Eisenberg와 Berkowitz가 제안한 Big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이 있다.[5] 이 모델에서는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구체적인 정보탐색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도 강조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은 [표 1]의 6단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5]

한편 김양은의 연구에서는 Ochs, Coons, Ostand, Barnes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정보의 힘과 역할, 다양한 정보의 형태와 내용, 정보구성을 위한 표준시스템, 다양한 형태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통해 정보를 수정하고 조작,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다섯 개

의 영역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차원의 정보 리터러시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유아 대상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역시 안전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탐색, 수집하고, 정보를 이용, 분석,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형태의 교육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정보리터러시 핵심 구성요소

오늘날의 컴퓨터는 단순한 교육 매체로서의 의미를 뛰어 넘어 유아나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정보

[Table 1] Big6 information literacy models for information troubleshooting

구분	6단계	세부항목
시작	정보의 필요성 인식	과제규명 ·과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확인
	정보탐색 전략수립	·활용가능한 자료 확인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
중간	정보의 소재파악과 접근	자료에 대한 물리적, 지적 접근 ·자료 내에서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
	정보의 활용	·정보 활용(읽기, 보기, 듣기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 추출
마무리	통합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재조직화 ·최종 과제물 작성
	평가	·최종 과제물 평가(효과성) ·정보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평가(효율성)

[Table 2]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ALA	ACRL	SCONUL	ANZIIL	핵심 구성요소
1.정보의 필요성 인지	1.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능력	1.정보요구의 인식능력	1.정보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결정능력	1.문제 인식과 정보의 필요성 및 정보원 인지 2.정보의 접근, 탐색, 수집 3.정보의 이용, 분석, 관리, 활용 4.정보의 생산, 소통, 공유 5.정보윤리, 정보문화
2.탐색전략 모색		2.정보결손의 확인능력		
3.정보의 소재파악 및 접근	2.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3.검색전략의 구축 능력	2.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4.정보의 평가	3.정보의 비판적 평가와 선택된 정보의 자신의 지식체계와의 결합능력	4.소재파악 및 검색 능력	3.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5.정보의 활용	4.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능력	5.비교평가 능력	3.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5.정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능력	6.정보의 조직, 적용, 전달능력	4.축적, 수집, 생산된 정보의 관리능력	
		7.기존정보의 종합 및 새로운 지식의 창조능력	5.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적용능력	
			6.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능력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정보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차별과 격차의 문제이다.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외국인정책기본방향”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기초하고 정책대상별로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기 본방향”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 3월 21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외국인정책기본방향에 기초한 이주민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언어격차, 정보활용격차,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중 정보활용격차 지원사업은 정책 대상별로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정보화 교육 등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의 지원 사업들은 언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보격차를 쉽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환경을 고려한 정보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모델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정보리터러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에 ALA의 정보리터러시 기준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조사된 정보리터러시 기준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정의한 정보리터러시 기준[12]과 더불어 ACRL의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s for Higher Education”[11], ANZIIL의 “Australia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3], SCOUNL의 “the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Literacy model”[8]의 주요요소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리터러시 핵심요소들을 추출하였다. [표 2]의 핵심구성요소 중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정보윤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정보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지적 재

산권을 보호하고 전자화된 각종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보리터러시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정보의 선용과 오용을 판단할 수 있고, 정보의 소유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컴퓨터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다문화 가정 유아 정보리터러시 교육 과정 모델

본 장에서는 기존의 정보리터러시의 기준들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요소들을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과정 모델 체계를 [그림 1]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모델은 교육의 성격,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의 유아를 위한 정보리터러시 핵심요소에 의거하여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모델의 목표는 다문화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는 유아들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정보리터러시 교육 분야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대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환경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그 방법과 내용면에 있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올바른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의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능력,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할 정보윤리의식과 사용과정상에서의 자기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목표가 있다.

교육의 내용은 다섯가지 핵심요소에 근거하여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내용은 해결할 문제와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능력, 정보의 올바른 활용능력, 올바른 정보의 활용과 자기조절능력을 포함한 정보윤리로 구

핵심 요소	문제 인식과 정보의 필요성 및 정보원 인지	정보의 접근, 탐색, 수집	정보의 이용, 분석, 관리, 활용	정보의 생산, 소통, 공유	정보윤리, 정보문화
교육 성격	유아기부터 정보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세부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 및 정보원을 인지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탐색, 수집을 할 수 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 분석, 관리, 활용할 수 있다.	획득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생산, 소통, 공유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올바른 시민의식을 기질 수 있다.
내용 영역	해결할 문제와 정보의 필요성 인지능력	정보의 올바른 활용능력			정보윤리
교수 학습 방법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영역간에 유기적 연결 동영상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비판적 사고모형의 사용 정보의 가치분석을 위한 조사, 토론의 활용 				
평가	인지적, 창의적, 기술활용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평가				

[Fig. 1]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multicultural model of infant

분하였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협력학습방법을 선택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스스로 정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체계화를 통하여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인지적, 창의적, 기술활용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인지적 평가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사용능력에 대한 지식획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창의적 평가에서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재창조할 수 있는가를, 기술활용의 행동적 평가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배운 내용들을 문제해결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여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아들을 교육하고,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평가기준들의 분석을 통하여 다섯가지 핵심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핵심 요소들에 기초하여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성격 및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나누어 교육과정 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리터러시 기준의 핵심요소들을 분석하여 사용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늘고 있지만 기술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4]

따라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이 유아기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인기까지의 각각의 정보리터러시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같은 다양한 환경의 유아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윤리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의 발달과 이해에 적합하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ACRL,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pdf>, 2000.

[2]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inal Report,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http://www.ala.org/acrl/nili/ilit1st.html>, 1989.

[3] ANZIIL,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http://www.anziil.org/resources/Info%20lit%202nd%20edition.pdf>, 2004.

[4] Buckingham, D.,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Cambridge:Polity, jNBook, 2003.

[5] Eisenberg, M. B., & Berkowitz, R. E.,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Ablex, 1990.

[6] Horton, Forest Woody, Jr, Information Literacy vs. computer Literacy, ASIS Bulletin, April:14-16, 1983.

[7]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5,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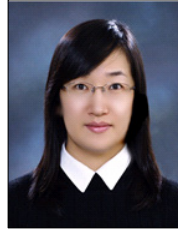
[8] SCONUL, Information skills in higher education: a SCONUL position paper, 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 1999.

[9] Zurokowski, Paul G.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 and Priorities,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ashington D.C., ED 100 391, 1974.

저자소개

정 영 애(Young-Ae Jung)

[정회원]



- 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과학과 (이학박사)
- 2000년 2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 1994년 12월 ~ 1998년 2월 : (주) 미래산업 기술연구소 연구원
- 2009년 3월 ~ 현재: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architecture